

環境保護는 국가보호의 제1조건입니다.

■ 편집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6월 한국환경보호협의회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환경계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분이려, 많은 환경인들이 류치현 이사장님의 프로필에 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신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부터 이야기 해 주시죠.

-먼저, 미약한 본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한국환경보호협회의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환경인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학을 전공한 대학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약학을 전공하다보니 농약의 두 얼굴, 즉 이익과 피해라는 양면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아이러니를 오늘날의 현실 즉, 산업문명이 인류를 편하게 살도록은 해 주었지만, 산업발전에 의한 환경오염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제약관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문제에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제약에서 인류의 복지를 지키는 환경보호로 관심이 구체화 되신 것인데요. 이사장님의 환경보호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을 보호하자〉〈환경을 보호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잇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즉, 환경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보호인데,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따라서 환경보호는 절대적 가치 추구로, 이 지구상의 생명중에서 제일 우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승

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생태계와 환경 그 자체에 1차적인 피해를 주고, 그것은 다시 사회를 병들게 하는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이어 국가를 파괴한다고 보았을 때, 환경보호는 국가보호라는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환경보호를 위한 외침이라고 할까? 주장은 나라사랑의 시각으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가 국가보호라는 개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실망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 형성의 1차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국토(영토)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토란 무엇 입니까? 땅과 그 땅의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해 주는 공기와 물, 자원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과 환경입니다. 그런 국가 형성의 1차적인 조건을 우선 순위로 보호한다는 데 무슨 꺼리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날과 같은 환경위기의 세계에서 국가정책의 1차 목표로 환경보호 우선정책을 편다고 해서 반대할 국민과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환경보호 외적인 면, 아니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당장의 이익(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익도 못된다)으로 보이는 일에만 정책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국가보호의 방향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 환경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중에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
진정한
환경보호를 위한
외침이라고 할까?
주장은
나라사랑의 시각으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환경보호협의회

- *창립 : 1975년 7월 2일 <환경보호를 위한 순수민간 단체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창립>
- *활동 : 1975년 부터 <의식조사> <공해추방 캠페인> <세미나·강연회·심포지엄·포럼> <자연정화운동> <세계환경의 날 행사> 등과 <환경보호 도서>의 발간 등 환경보호를 위한 선구적 활동을 전개
- *연락처 : 우편 : 100-669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978호
전화 : 738-3607, 3608, 3609
FAX : 738-3609

-지구 환경은 의외로 심각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존층 소멸> <온실효과에 따른 지구 온난화> <산성비에 의한 생태계 파괴> 등과 <사막화의 가속>은 그 개선에 이미 때를 놓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의 대기오염과 식수원인 강의 오염에 대하여 하루속히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런던 스모그 사건>보다 더 큰 대기오염 참사와 <미나마타. 이따이 이따이 병>보다 더 심각한 공해병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어야만 합니다. 즉, 기업과 국민이 이제, 정말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갖도록 환경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환경보호협회의 91년도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사장님께서 새해 협의회 활동 목표와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은 우리나라에서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해 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이쪽에 앵글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발전, 특히 가시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자연파괴와 환경악화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 계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금년에는 본회 지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전국 읍단위 까지 지부를 설치해 1천만 회원확보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천만 회원은 1천만 환경보호의 생활화가 되고 그것은 그만큼 오염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금년 부터는 본회의 활동을 전국민 환경보호의 생활화를 위하여, 구체적이며 과감한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아무쪼록 뜻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